

범어사 10월 개산 기념 문예대제전 개최

지역민 참여 열린 축제

선찰대본산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가 '범어사 개산 문예대제전'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연다.

개산 1천 3백년을 돌아보고 개산조 의상 대사의 가르침을 되살리기 위한 이번 문예대제전은 특히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문화축제로 만들기 위한 기획과 전시 공연, 문화체험 마당 등이 다양하게 준비중이다.

'문 없는 문을 열다'는 라는 주제로 범어사 경내, 범어사 순환도로, 금정산 등에서 펼쳐지는 이번 문예대제전을 위해 범어사는 이

추진위 구성 일회성 탈피
다비시 시연 성찰 기회 제공
발우공양 등 체험 행사 다채

를 성찰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개산조인 의상대사의 사상과 가르침을 기리는 개막식, 영산재와 함께 범어사 순환도로를 따라 밝혀질 5만여 연등이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영화제, 음악제, 마당놀이 한 마당, 백일장, 사생대회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와 발우공양, 다도, 템플스테이, 달마그리기, 전통등 만들기, 사찰음식 시연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체험행사를 마련된다.

이철수 판화전, 야생화 전시 및 환경 생태전, 동래와 범어사 옛 사진 역사전 등의 전시 행사도 마련되며 의상 스님 관련 학술세미나, 이야기기행마당도 기획중이다. '이야기기행마당'은 보다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의상스님에 얽힌 이야기, 불교철학 등 구수한 이야기로 범어사의 역사를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개산의 의미를 살리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수행,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이번 개산대제 문예대제전은 향후 범어사가 부산문화의 선도를 하는 중심에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051)508-3122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양산 통도사는 사부대중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실과 야외 쉼터 등을 갖춘 도서관을 현 주차장 자리에서 짓는다. 사진은 8월 25일 기공식을 갖는 도서관의 조감도.

시민위한 도서관 만든다

양산 통도사(주지 현문)가 시민들을 위한 도서관 건립, 보행로 재 단장 등으로 통도사를 찾는 불자들의 문화유구 증진, 휴식공간 제공 등을 고려한 불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8월 25일 오후 2시 기공식을 갖는 통도사 도서관은 성보박물관 맞은편에 건립되며 여느 사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제대로 된 열람실과 자료실을 갖춘 예정이다. 117평의 열람실과 60평의 자료실을 갖춘 통도사 도서관은 목조양식으로 건립되며 내년 하반기 문을 열게 된다.

통도사 도서관은 스님과 불자, 일반인들을 위한 인터넷 검색실, 불교교양도서실, 열람실 등을 갖추고 단순히 책을 '읽는' 도서관에서 벗어나 직접 '찾고' 눈으로 '보는' 도서관이 되도록 다양한 자료를 갖춰 사찰도서관 문화의 선도를 나갈 예정이

다. 이에따라 통도사 도서관은 불사 읽기와 보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통도사는 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서관 주변 공원을 함께 추진한다.

도서관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숲속에 건립되는 점을 감안, 주차장을 없애고 도서관 앞 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꾸민다.

아름드리 소나무를 그대로 활용해 야외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춘 한련, 도서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통도사 성보박물관과 도서관이 유기적, 통합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중이다.

도서관, 숲속, 성보박물관을 한데 묶어

공원화한 이 공간은 수행, 기도를 위한 공간과 구별되는 곳으로 법당 참배 후 머물 곳이 없었던 참배객들을 위한 열린 공간이 되는 셈이다.

도서관 공원화와 맥락을 같이해 추진중인 것이 보행로 재단장. 일주문에서 도량으로 들어가는 총 1km 구간의 숲길에 포켓휴식공간, 지압 기능을 갖춘 건강산책길, 체육공원, 포토존, 포켓 휴식공간, 조망공간, 약수터, 찻집 등을 자연경관과 어우러지게 설치한다.

이 보행로는, 한번쯤 가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유명한 일본 '철학의 거리'처럼 걷고 싶은 보행로로 만들겠다는 것이 통도사의 계획이다.

통도사, 180평 규모 25일기공

개원 맞춰 주변 공원화 추진

특수조명 1km 숲길도 조성

'저절로 가는 길(가침)'로 명명될 이 길은 밤에는 숲속의 경관을 살리는 특수 조명을 설치해 걸으며 사색하는 사찰 보행로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사찰 도서관이 불자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통도사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맑은 심성을 일깨워주고 사색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도서관 개원과 보행로 단장, 공원화가 완성되면 불보종찰 통도사는 대중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055)382-7182

양산=천미희 기자

덕원중 김휘령 팀 대상

'대구 역사문화재 모니터링' 시상

지난 5-6월 전개했던 대구역사 순례를 통한 문화재 모니터링 활동에는 총 144개 팀 586명의 대구 시내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 문화재 모니터링 활동을 평가하는 시상식이 (사파리마타 청소년협회 대구지부 이하 파라마타 대구지부)총재인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과 활동에 참가했던 선생님들과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15일 동화사에서 열렸다. 대상엔 덕원중학교 김휘령, 강소정, 김중진, 손진영 팀과, 대곡고등학교 신명호, 김진욱, 김상은, 김선재 팀이 대구광역시 시상상을 수상했다.

또한 청구중학교 팀과 경상여고 팀이 금상인 대구광역시 교육감상을 수상했고, 은상인 파라마타 대구지부 총재상에는 동부중학교, 상원중학교 신명여자중학교, 대곡고등학교, 경상여자고등학교에서 출전한 5개 팀이 수상했다. 대구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재 모니터링 활동을 잘 지도한 청구중학교 오영규, 대곡고등학교 마효철 선생님이 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배지선 기자

관음사, 출가학교 입교식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해)는 8월 16일 4층 법당에서 제1기 출가학교 입교식을 갖고 이어 행사 수행관에서 식발식도 가졌다. 여덟 명의 단기출가자들은 '바른 깨달음의 성취와 새 세상의 정토구원'이라는 가치 아래 8월 31일까지 출가수행자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

우해 스님은 입교식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생활을 해 본다는 것은 인생에 큰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곳에 온 이상 규칙과 통제를 잘 따라 스님생활 그대로를 경험하고 자기 자신에게 큰 덕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대불청 부산지구 템플스테이

대불청초청년회 부산지구(회장 류상영)는 8월 14-15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템플스테이 새벽명기'를 찾아서"를 진행하고 회원간의 화합을 다졌다.

'더불어 하나되기'라는 주제로 6개 지회 청년회원들과 일반불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템플스테이는 선무도, 부처님소 조각하기, 발우공양, 다도, 레크리에이션, 마음나누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스스로의 장점을 발견하고 타인을 칭찬하는 '마음 힙 내기' 도량에서 자신과 법우들의 진솔한 경험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말하는 '마음 어루만지기' 서로의 서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서원의 촛불 쬐기' 등이 마련됐다.

둘째 날 진행된 '마음나누기'는 명상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되기' 과정으로 회원간 화합과 이해를 도우며 호응을 얻었다.

천미희 기자

“인재 양성의 문 활짝”

무시험 전형 '참여불교캠퍼스' 부산 동명대학에 개설

2005년 3월 첫 입학

산업현장과 대학이 만나는 산학협력 캠퍼스 개념이 불교와 대학의 만남으로 이어져 불교계 최초로 불자들에게 무시험전형으로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불교캠퍼스가 개설된다.

참여불교운동본부(상임대표 혜종)와 부산 동명대학(2년제)은 8월25일 조인식을 갖고 2005년 3월부터 20명 정원의 참여불교캠퍼스(가칭)를 개설하기로 했다. 산학협력 캠퍼스 개념의 참여불교캠퍼스는 불교계 종사자나 사찰 주지 스님들의 추천을 받은 불자들에게 한해 지원 자격을 주는 무시험 전형의 2년 과정으로 동명대 사회복지학과 내

에 개설된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불자들을 대상으로 9월부터 수시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참여불교캠퍼스는 사회복지학과에서 다루는 모든 교과과정을 총망라하고 복지현장 실습 교육을 아울러 사회복지분야에서 활동할 불교 인재 양성의 문을 활짝 열게 됐다.

특히 그동안 신심을 바탕으로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펴는 복지활동을 장기간 펼쳐왔지만 자격증이 없었던 불자들이 앞으로 복지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픈 불자나 스님들에게 호소식.

참여불교캠퍼스 입학생들은 정규과정 학생들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거치게 되며 2년 수료 후 전문학사학위취득은 물론 사

회복지사 2급 자격증, 케어 복지사 3급,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이 수여된다.

불교캠퍼스는 불교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불국토 산하 복지관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각종 현장 실습과 교육을 받게 되며 복지현장에서 활동해 온 스님들이나 전문가들을 객원교수로 위촉, 현장 경험이 담긴 특강이나 세미나를 열어 불교적 지혜가 살아있는 복지를 펼치는데 도움을 줄 방침이다. (051)302-7902

천미희 기자

조직화로 도약을

2004 대불련 총동문대회

"선배님!"

"아니 이게 누구야? 아이구 아들, 딸 언제 이렇게 키워요?"

8월 14일 황악산 직지사에서 여가져기 반가운 상봉의 목소리가 드높다.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동문들이 고향을



직지사에서 열린 '대불련 총동문대회 2004'에서 대불련 동문들과 그 가족들이 문화행사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

찾는 심정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황악산 직지사로 물러온 것이다. '대불련 총동문대회 2004'는 500여 대불련 동문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황악산 직지사에서 1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함께 느끼고 더불어 사는 세상'. 41년전 창단한 구도자가 되어 부처님 법을 이 세상에 구현하고자 대불련을 창립하고 이끌어온 역대 대불련 주역들이 부처님의 혜광대로 함께 느끼고 더불어

김천=배지선 기자

천하제일의 운명의 등대 천신의 안내서

도서출판 새로운문화사



육경신을 통한 저자 74세

八卦秘傳 팔괘비전

閱易神書

增補版 증보판

열역신서 天醫仙道 太宗仙師 楠宮 金永生 編著

제1편 운명의 예언

人生은 배우 운명은 각본 생활은 연출

당신의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시시각각의 변화 양상이 수록되어 있다. 어떠한 난관에 처해도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처신 방향을 정확히 설파해 놓았다. 그래서 神書이다.

저자는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 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 터인데,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인명을 구하고 구천에 방황하다 후손의 물에 빙의되어 사육편정을 조성하는 영혼에게 사면령을 내려 연화장계로 보내라는 천명을 받고 전 인류에게 알리기 위해 팔괘비전 열역신서 증보판을 낸다. 미구에 닥칠 대 예언서다.

제2편 四象醫學 八象分類法

太陽人 I, II型 太陰人 I, II型 少陽人 I, II型 少陰人 I, II型

사상의학의 숙원인 팔상분류법을 완성공개. 체질에 맞는 이로운 식품과 해로운 식품을 분류했다. 같은 체질이라도 열 체질과 한 체질이 있고 장부가 다르기에 보사법을 수록해 놓았다.

제3편 生老病死와 사후영혼의 실상을 밝혔다

업장을 풀고 속명을 뛰어 넘으라

건강을 원하거나 행복을 원하거나 천문을 열리라. 평생희비 50만원을 20만원에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천문이 열리면 생명의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하여 몸속으로 유입되면서 손과 손 사이에 자식의 밀고 당기는 것 같은 자장을 느끼며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 받고 천상 신명계로 떠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몸과 마음이 거뜬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며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려갑니다. 건강과 행복을 찾는 천상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책값 30,000원

직접 오셔서 책을 구입하는 분에게는 운명상담은 물론 8상체질 분류도 무료로 해 드립니다.

주문 ☎ : (02)2216-6278 HP : 011-9803-4600
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